다산愛

다산의 가족사랑

다산 정약용은 위대한 대학자이기도 하지만 집안에서는 부인과 아들 ·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. 부인 홍씨의 이름은 혜완惠婉이다.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함께 해서인지 아내에 대한 다산의 정은 남달랐다. '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우며' 가난을 견뎌내는 아내였다. 다산은 유배길에 오르며 한강가에서 아내와 헤어질 때, "표정이야 비록 씩씩한 체 해도, 마음이야 나라고 다를 수 있으랴"라고 하여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남겼다.

두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 또한 각별하였다. 부인 홍씨와 사이에서 6남 3녀의 자식을 두었지만 학연 · 학유 두 아들과 딸을 제외하고 모두 어린 나이에 천연두 및 홍역으로 먼저 보내고 말았다.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. 『마과회통麻科會通』의 편찬은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을 저술로 승화한 것이다. 또한 두 아들이 천연두를 무사히 마치자 기념으로 시를 쓰기도 하였다.

이 때문인지 남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여기저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. 하피첩으로 대표되는 가계家戒 외에도 다산시문집 내의 여러 가계와 유배 중에 보낸 수 많은 편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. "부지런해라. 검소해라. 술마시지 말라. 공부해라...." 어떻게 보면 잔소리 많은 아버지의 모습일 수 있지만 자식이 올바르게 크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의 어느 부모와 다르지 않았다. 또한 두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겼다. 아버지 뜻을 따라 이웃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며 참다운 선비가 되기 위해 독서에 힘썼다. 두 아들은 그렇게 성장하여 큰아들 정학연은 『종축회통種畜會通』을, 작은 아들 정학유는 농가월령가와 『시명다식詩名多識』을 짓는 등 19세기 학술사에서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.

다산기념관

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로 766-20

Tel. 061-430-3911~6
Fax. 061-430-3629
http://dasan.gangjin.go.kr

다산기념관 특새전시
2015. 12. 1. ~ 2016. 1. 31.

다산愛

다산기념관

가경 18년 계유(1813) 7월 14일, 열수 늙은이는 다산의 동암에서 쓴다.
내가 강진서 귀양 산 지 여러 해가 지났다.
홍 부인이 여섯 폭 낡은 치마를 부쳐왔다.
세월이 오래되어 붉은 빛이 바랬기에
이를 잘라 네 첩으로 만들어 두 아들에게
주었고, 그 나머지를 작은 가리개로
만들어 딸에게 준다.

–매화병제도 발문

매화병제도_고려대박물관 소장

거가사본_개인 소장

다산의 제자 황경의 『양포일록』에는 다산이 잃어버렸다고 애석해한 「거가사본」이 실려있다. 다산은 집안에서 지켜야 할 네가지 근본으로 제가齊家(효도 · 우애 · 자애), 치가治家(근검 · 성실), 기가起家(독서 · 혼인), 보가保家(순리 · 순응)로 나누었다. 이 네가지 근본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항상 읽기를 강조하였다. 비단 두 아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였는데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엿볼 수 있다.

다산이 남긴 하피첩과 매화병제도는 다산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온전히 담겨 있다. 다산이 유배간지 5년째인 1806년, 결혼 30년이 되는 해였다. 홍씨 부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그리며 쓴 시와 함께 자신이 시집올 때 가져온 치마를 유배지의 남편에게 보냈다. 치마를 받은 다산은 치마를 마름질해 여러 폭으로 나누어 두 아들에게 경계의 말을 적어 주었다. 이것이 하피첩이다. 그리고 남은 치맛자락을 다시 말려서 시집가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매화 꽃가지 위에 정다운 멥새를 그려 선물로 주었다. 이것이 매화병제도이다.

하피첩_국립민속박물관 소장(보물 1683-2호)

병든 아내 낡은 치마를 보내
천리 먼 길 애틋한 마음 부쳤네
오랜 세월에 붉은 빛 이미 바래니
늘그막에 서글픈 생각뿐이네
마름질하여 작은 서첩을 만들어서
자식들 일깨우는 글귀를 써보았네
부디 어버이 마음 잘 헤아려서
평생토록 가슴 깊이 새겨 두기를

–하피첩 서문에서

정약용 편지_실학박물관 소장

다산이 아버지 정재원에게 보낸 답장이다. 감기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안부와 좋은 녹용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사정,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뵙겠다는 내용으로, 아버지를 향한 다산의 효심이 묻어난다.

정약용 편지_나주정씨 월헌공파종중 소장

1811년 2월 그믐에 제자 중 한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. 1810년 큰아들 학연이 부친의 억울함을 상소하여 해배의 움직임이 보이자 자신이 강진을 떠나면 흑산도에 있는 형 정약전을 부탁한다는 내용이다. 흑산도로 머리를 돌리면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는 말에서 형에 대한 그리움을 짐작할 수 있다.